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효과

광주 후산업 매출 22%·수출 25% 꺾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탄력
419명 신규 채용
고용 창출 큰 도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가 62만대 증산 인원협의를 합의하면서 광주시가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7일 노사협의를 통해 광주 2공장 증산 UPH(시간당 생산대수)를 58UPH로 확정할 데 이어 이날 증산관련 인원협의를 최종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광주공장 신규 채용 인원은 총 419명으로

확정됐으며 증산 프로젝트 발표 뒤 19개월 만에 증산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광주공장의 연산 62만대 생산규모는 기아차 최대 공장인 경기도 화성공장(62만대)의 생산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광주공장이 화성공장과 더불어 기아차를 대표하는 공장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지난 2009년 32만여대 생산에서 2011년 12조674억 원이던 광주 자동차산업 매출액은 2014년 15조3266억 원으로

2배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됐다.
광주공장의 주력 수출 차종인 쏘울과 스포티지R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출량도 2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8조원인 연간 매출도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62만대 체제가 가동되면 광주시의 자동차 산업도 눈에 띄게 성장하게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조674억 원이던 광주 자동차산업 매출액은 2014년 15조3266억 원으로

22.3%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제조업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40.13%에서 2014년 45.08%로 올라간다. 9만여대 가량 생산이 적었던 쏘울과 스포티지R, 올 뉴 카렌스 등 광주공장 생산물량 해소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양질의 고용 창출 부분도 광주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목이다. 419명의 신규 인원 채용은 지난 2005년 이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가

장 큰 규모의 채용이다. 현재 6700명인 직원수는 7100여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미 3000억 원을 들여 증산설비를 완료했다. 최신 시설의 생산라인은 물론, 62만대 증산 체제에 적합한 부가설비까지 설비 투자를 끝마쳤다. 증산의 핵심인 2공장의 경우 늘어난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휴게실과 식당, 체육관까지 이미 지어졌으며 신규 인원이 투입되는 즉시 증산이 가능하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는 계획대비 상당부분 지체된 증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예정보다 많이 지체된 만큼 조기 가동을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기아차 노사가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단체협상 무분규 타결 의미

4년 워크아웃 조기 졸업 가능성 커져

노사 상생 공감대
빠른 합의안 도출
시장 신뢰회복 등
경영 긍정적 효과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무분규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면서 워크아웃 조기 졸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6일 제12차 교섭을 진행해 밤 11시에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09년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노사협상 과정에서 3년째 계속됐던 파업 등 노사 분규를 거치지 않고

4년 만에 조정신청 없이 '무쟁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6일 노사대표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그동안 12차례의 교섭에서 워크아웃 졸업과 임금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노사 공동의 목표인 워크아웃 졸업과 노사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무분규 잠정합의안 도출은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위해 노사가 '상생'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파업으로 10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쳤던 노조가 12차례의 교섭 만에 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은 노사가 워크아웃 졸업을 놓고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가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로 교섭을 진행하

지 않았다"며 "빠른 합의안 도출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점에 노사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무분규 잠정합의는 채권단이 경쟁력 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채권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워크아웃 기업 특성상, 안정된 노사관계는 조기 졸업의 플러스 요인이다. 잠정합의안이 조기 가결되면 생산품질에 중점을 둔 경영활

동도 가능하다. 이어 시장 신뢰회복 등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무엇보다 계속된 파업으로 인해 끊이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지역민과도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이라는 국내 생산시설의 기반을 둔 우리 지역에서 두 공장의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투쟁 일변도

의 교섭에서 올해는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조의 방침을 움직였다"며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인 만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28일째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초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2013년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SK telecom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A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먼저 시작합니다
만나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속도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
이것을 LTE-A라 부르겠습니다

기존 LTE의 2배, 유선광랜의 1.5배 속도 LTE-A 2013년 6월 26일 세계최초 상용화



전통시장 할머니 미용서비스
대인시장 상인들이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진행한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상생협력 무료 미용서비스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여름 잡아라... 광주 백화점 오늘부터 세일

지역 백화점 업계가 세일 전쟁을 시작한다. 긴 불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달간 진행한지만 첫 주말에 특별전과 이벤트를 집중, 매출 극대화를 노린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롯데 등 주요 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1일간 여름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바캉스'를 테마로한 다양한 상품 기획전을 준비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스포츠웨어 행사인 '힐라(FILA) 여름 참고 공개전'을 1층 이벤트 홀에서 진행한다. 이어 7월 1일부터는 '바캉스 티셔츠 페어'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를 기점으로 200km이 내 산지에서 생산된 제철 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베스트 로컬푸드 페스티벌' 행사를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진행한다.
세일기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1층 광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경비행기 1일 체험권 및 가족 요트 투어권, 한옥호텔 숙박권 등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여름 웰리지 세일'을 진행, 바캉스 등 여름 아이템을 비롯해 의류, 잡화, 해외 패션 등 다양한 품목을 10~30% 할인해 판매한다.
세일기간 동안 '핫 썸머 럭키백 특집전'도 연다. 원피스, 숏팬츠, 란제리, 액세서리 세트 등 바캉스 아이템과 여름상품을 50~70% 할인하고 럭키백의 가격만큼 담아 판매하는 행사다.
최근 간판을 바꿔댄 NC백화점 광주점도 28일부터 첫 '럭키세일'에 들어간다.
이번 세일에는 빈폴 그룹이 30% 시즌오프세일을 하며 폴로·라코스테 헤지스레이디·타미힐피거·헨리코트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 30% 세일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여름 의류를 비롯해 잡화, 스포츠레저, 가구 등 전 품목을 30~10% 할인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농어촌공사 4개 단체와 농어촌 재능기부 협약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본부장 김행운)는 27일 본부 회의실에서 전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올해 재능기부를 약속한 단체와 2013년 농어촌재능기부 MOU를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재능기부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남본부와 협약을 맺은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재능기부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전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고인물문화사업단 ▲다문화인권센터 ▲1004재능기부단 등 4개 단체이다.
이들 기관은 SNS마케팅, 예술공연 활동, 창업컨설팅 등 농어촌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4개 단체를 포함, 이번 4개 단체까지 총 8개 단체와 재능기부 협약을 맺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74.70(+51.25)	▲ 코스닥지수 512.25(+19.18)	▲ 금리 (국고채 3년) 2.97% (0.00)	▲ 원 달러 환율 1149.70원 (-4.80)
----------------------------	---------------------------	-------------------------------	-------------------------------